



학습 일지

“주의를 기울여 기록한 지식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거룩한 곳에 보관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많은 빛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영적인 지식을 얻음”,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88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천재와 현재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이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하고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헐클리 회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 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야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했고 오히려 그 때문에 멸시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관한 진리와 천세의 실재와 지상 생활의 목적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정죄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린도전서 15:20)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방문하셨으며,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들”(요한복음 10:16)에게도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현대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대가 찬 경륜”(에베소서 1:9)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교리와 성약 110:3~4)

이 선지자는 그분에 관해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에베소서 2:20)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이사야 40:5)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일회장단

Thomas M. Monson
Thomas M. Monson
James E. Faust

십이사도 정원회

Boyd K. Packer
Boyd K. Packer
Dwight H. Friesen
Neal A. Maxwell
Russell M. Nelson
Dallin H. Oaks

M. Russell Ballard
M. Russell Ballard
Joseph B. Wirthen
Richard G. Scott
Robert D. Hall
Jeffrey R. Holland
Henry B. Eyring

2000년 1월 1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출생과, 비할 데 없는 생애와, 무한한 속죄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200년 전 1820년 아름다운 봄날 아침,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고자 했던 어린 조셉 스미스는 미국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 숲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는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에게 나타나셨으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만물의 회복”(사도행전 3:21) 시작하셨다는 것을 겸손하게 선언한다. 이 시현을 통해서 그는 신약 시대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대 사도들이 사망한 뒤 지상에서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조셉은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하늘의 사자들이 조셉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지시 아래 지상에 왔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부활한 침례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행할 권세를 회복하였다. 초대 십이사도 중 세 사람—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도 직분과 신권 권세의 열쇠들을 회복하였다. 지상을 방문한 다른 사자들 중에는 엘리야도 있었다. 그는 가족이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결합해 주는 권세를 회복하였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고대의 기록, 즉 물문경—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번역했음을 증언한다. 이 성스러운 기록의 한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서반구에 있는 백성들에게 친히 성역을 베푸신 기사가 실려 있다. 물문경은

삶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 목적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해 준다. 물문경은 성경과 짝을 이루는 경전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그분께서 우리 삶에 대해 신성한 계책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우리는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것임을 선언한다. 이 교회는 그 머리된 모퉁잇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와, 그분의 실제적인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신권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그분의 교회로 나아와 성신과 구원 의식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얻으라고 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이 시작된 지 200년이 흘렀다.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대에 예언되었던 이 일들이 참됨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 약속된 회복이 지속적인 계시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이며(에베소서 1:10) 세상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도로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모든 사람이—우리가 아는 것처럼—알도록 권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한 자신의 뜻을 알려 주고 계시를 분명히 선언한다. 회복의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신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목적은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증거를 축복으로 얻을 것임을 우리는 증언한다.

본 선언문은 2020년 4월 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제190차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교리 익히기 소개

물론경에서 선지자 힐라맨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힐라맨 5:12) 한다고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울 때, 즉 그분의 교리를 이해하고 믿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더 깊이 개심하게 되고 더 굳건히 결의하게 되며, 대적의 영향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축복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함께 교실에서 경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교리 익히기라는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다.

교리 익히기는 두 가지 결과에 중점을 둔다.

1.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신성한 원리를 배우고 적용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원리들을 밝혀 주셨다. 그러한 원리에는 신앙으로 행하는 것, 영원한 관점에서 개념과 질문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출처에서 더 깊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교실 안팎에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성신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교리적,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동안 우리는 교리를 익히게 된다.

2. **교리 익히기 성구와 그 성구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익힌다.**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 a. 교리 익히기 성구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안다.
- b. 해당 교리를 관련된 교리 익히기 성구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설명한다.
- c. 교리 익히기 성구를 기억하고 찾을 수 있으며 성구의 핵심 문구를 암기할 수 있다.
- d. 일상적인 선택을 할 때나 교리적,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사안과 질문에 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와 영적인 지식을 얻는 원리를 그것에 적용한다.



영적인 지식을 얻음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입니다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진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발전하여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고 격려하셨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축복하는 그분의 권능에 의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성신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진리를 밝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2.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조건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성스럽게 정하신 방식에 따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그분이 알려 주신 대로 기꺼이 생활해야 한다. 우리에게 진정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진리를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3.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교회의 교리, 관행, 또는 역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거나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다.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은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 중에는 성신의 영감으로 오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영감 어린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는 까닭은 이를 통해 우리는 이해력을 키우고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확신을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질문이 어디에서 온 것이든 간에, 우리는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과 주님의 영향력으로 인해 넓게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축복받았다.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와 의도는 성신을 통해 배우는 우리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다음 세 가지 원리는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며 질문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다.

- 신앙으로 행한다.
- 영원의 관점에서 개념과 질문을 검토한다.
- 주님이 정하신 지식의 출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구한다.

원리 1: 신앙으로 행한다

5.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진지한 기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먼저 그분께로 향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행하는 것이다.
6. 우리의 이해를 증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회복 그리고 성임받은 그분의 선지자들에 대해 이미 갖고 있는 자신의 간증에 의지하는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라고 권고하셨다.(교리와 성약 6:36)
7. 우리가 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즉시 찾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하셨으나 모든 진리를 다 드러내신 것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답을 구하는 동안 결국에는 구하는 답을 얻으리라는 것을 믿으며 신앙으로 생활해야 한다. 이미 받은 진리와 빛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질문과 기도에 대한 응답은 대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온다.(니파이후서 28:30)

원리 2: 영원한 관점에서 개념과 질문을 검토한다

8. 영원한 관점에서 교리적 개념, 질문 및 사회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구원의 계획과 구주의 가르침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사물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 우리는 성신의 도움을 구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질문을 재구성하여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고, 세상의 전제나 가정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진리에 대한 주님의 표준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을 고찰하게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함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데 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개념이나 문제에 적용되는, 또는 이를 명확히 해 줄 복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9.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질문도 영원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굳건히 신뢰할 때, 우리는 문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또한 역사에 관한 질문을 검토할 때는 현재의 시각과 태도를 내세우는 대신 당시의 문화와 규범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역사에 관한 질문을 검토하는 데는 현재의 시각과 태도를 내세우는 대신 당시의 문화와 규범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사적 맥락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10. 역사적인 세부 사항은 성약과 의식과 교리의 구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덜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빼앗겨 회복이라는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놓친다면, 그것은 곧 선물 상자를 분석하며 시간을 보내느라 선물이 선사하는 놀라움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

원리 3: 주님이 정하신 지식의 출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구한다

11. 주님께서는 영적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정하신 과정의 일부로 지식의 출처를 제정하셨으며 그 출처를 통해 진리를 밝히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그러한 출처로는 그리스도의 빛, 성신, 경전, 부모 및 교회 지도자 등이 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주님의 선지자인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필수적인 진리의 원천이다. 주님은 당신을 대변하도록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성임하셨다.
12. 우리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출처를 통해서도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출처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이사야 5:20) 시대에 살고 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이 임명하신 종들에게서 멀어지도록 설득하려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출처를 인식하고 피하는 법을 배우면 잘못된 정보와 신앙을 파괴하려 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성신의 도움을 구하며 해답과 방향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서 제정하신 진리의 출처에 의지할 때, 우리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5)라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얻도록 도움

13.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리, 관행, 또는 역사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세히 알아보려 할 때, 그들이 진리를 찾도록 우리가 도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14. **주의를 기울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음.** 대답하기 전에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실제로 묻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의 진정한 의도와 그들의 감정과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진지하고 사려 깊게 노력한다. 질문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울 수 있을지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15.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간증함.**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을 통해 배운 것 중에서 질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그러한 배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한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자신의 질문을 복음과 구원의 계획의 맥락에서 검토하거나 재구성해 보도록 돕는다.
16. **신앙으로 행하도록 권유함.**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영적인 지식을 구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점을 기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이 정하신 지식의 출처, 특히 물문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신앙을 행사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성신을 느꼈을 때의 경험을 기억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을 때까지 이미 배운 영원한 진리를 굳게 붙들라고 권고한다.
17. **끝까지 도움을 준다.** 답을 찾아보겠다고 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을 나눔으로써 끝까지 도움을 준다. 또한 함께 답을 찾아볼 수도 있다. 개인적인 계시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다.

과정별 교리 익히기 성구 및 경전 핵심 문구

구약전서

모세서 1:39.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것이 곧 나의 일ियो, 나의 영광이니라.”

모세서 7:18.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아브라함서 2:9~11.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 성역과 신권을 지니고 모든 나라에 전하리라”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서 3:22~23. 영으로서 우리는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되었다.

창세기 1:26~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24.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창세기 39:9.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출애굽기 20:3~17. 십계명

여호수아 24:15.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편 24:3~4.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잠언 3:5~6.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1:18.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5: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29:13~14. 복음의 회복은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이다.

이사야 53:3~5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8:6~7. 올바른 금식의 축복

이사야 58:13~14.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라]”

예레미야 1:4~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스겔 3:16~17.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에스겔 37:15~17. 성경과 물몬경은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다니엘 2:44~45.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모스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리라]”

말라기 3:8~10. 십일조를 바칠 때 오는 축복

말라기 4:5~6.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신약전서

마태복음 5:14~16.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마태복음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15~19. 예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2:36~39.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 . 네 이웃을 . . . 사랑하라”

누가복음 2:10~12.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2:19~2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하셨다.

누가복음 24:36~39.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요한복음 3:5.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7: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 . . 알리라”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 . .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고린도전서 6:19~20. “너희 몸은 . . . 성령의 전[이니라]”

고린도전서 11:11.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5:20~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40~42. 부활할 때는 세 가지 등급의 영광이 있다.

에베소서 1:10.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그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19~20.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1~3.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기] . . . 전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15~17.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 . .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2:9. 하나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이시다.

야고보서 1:5~6.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 .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2:17~18.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4:6.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요한계시록 20:12.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 . . 심판을 받으니”

물문경

니파이전서 3:7.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니파이후서 2:25.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니파이후서 2:27. “그들은 자유로이 . . .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 . .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니파이후서 26:33.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니파이후서 28:30. 하나님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시리라].”

니파이후서 32:3.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

니파이후서 32:8~9.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모사이야서 2:17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라].”

모사이야서 2:41.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 . . 모든 일에 복됨이요.”

모사이야서 3:19.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라].”

모사이야서 4:9. “하나님을 믿으라. . . 그가 . . . 모든 지혜[를] . . . 가지셨음을 믿으라.”

모사이아서 18:8~10.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엘마서 7:11~13.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엘마서 34:9~10. “속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함이니 ...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 될 것임이라.”

엘마서 39:9.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라.]”

엘마서 41:10.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

힐라맨서 5:12.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하느니라.]”

제3니파이 11:10~11. “나는 ...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담당하였느니라.”

제3니파이 12:48.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3니파이 27:20. “내게로 와서 ...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라.]”

이더서 12:6.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이더서 12:27.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 내가 ...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모로나이서 7:45~48.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모로나이서 10:4~5.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조셉 스미스—역사 1:15~20. 조셉 스미스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을] ... 보았다.”

교리와 성약 1:30.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교리와 성약 1:37~38.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교리와 성약 6:36.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교리와 성약 8:2~3. “나는 ...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교리와 성약 13:1.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다].”

교리와 성약 18:10~11.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

교리와 성약 18:15~16.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9:16~19. “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21:4~6. 선지자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교리와 성약 29:10~11. “나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 하늘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어 천 년 동안 지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라.]”

교리와 성약 49:15~17. “결혼은 하나님이 ...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58:42~43.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교리와 성약 64:9~11.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76:22~2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 . .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다.]”

교리와 성약 82:10.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84:20~22.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118.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교리와 성약 89:18~21. 지혜의 말씀에 수반되는 축복

교리와 성약 107:8. “멜기세덱 신권은 . . .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 영적 일을 집행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21:36, 41~42. “신권의 권리는 . . . 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22~23. “아버지는 . . .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 . . 영의 인격체시니라.”

교리와 성약 131:1~4.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교리와 성약 135:3.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물문경을 세상에 내놓았[다.]”

일일 경전 독서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1		31		31		31	31		31		31













































































































































